

2015 / 06 / 08 (MON)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혼조세.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5월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 인터넷주가 상대적으로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이오테크닉스, 선데이토즈, SK C&C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LG디스플레이, 다음카카오, LG전자 약세.

종목별로는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에 이오테크닉스가 14.9%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43.26	-0.2%	-3.3%	138 억	58 억
KRX Semicon	2,024.11	1.5%	7.9%	327 억	202 억
(코) 반도체	1,005.69	0.5%	26.2%	19 억	73 억
(코) IT H/W	411.86	0.4%	18.1%	41 억	118 억
(코) IT S/W	2,184.88	-0.8%	9.3%	-68 억	92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341,000	0.3%	1.1%	67 억	205 억
LG전자	54,200	-1.6%	-8.3%	-66 억	17 억
삼성SDI	116,000	-2.9%	0.0%	-44 억	-91 억
삼성테크윈	30,600	1.5%	28.3%	25 억	23 억
서울반도체	17,150	-1.2%	-15.1%	-2 억	-1 억
신도리코	67,600	-0.4%	-0.3%	-1 억	0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9,050	1.6%	2.7%	219 억	-42 억
이오테크닉스	115,900	14.9%	-7.5%	33 억	34 억
월익IPS	14,750	-0.7%	5.7%	-34 억	21 억
리노공업	48,100	-2.6%	25.6%	-4 억	-4 억
유진테크	18,150	1.4%	12.4%	7 억	11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73,000	-3.9%	-7.0%	142 억	-377 억
SK C&C	281,000	2.2%	31.6%	-33 억	36 억
포스코 ICT	5,050	-0.4%	-4.7%	4 억	0 억
다우기술	16,900	-4.8%	41.4%	-3 억	-9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65,000	-2.6%	-20.6%	19 억	-148 억
다음카카오	110,700	-2.8%	-10.4%	-34 억	-8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8,800	-3.7%	-14.4%	-103 억	22 억
에스에프에이	46,900	-0.1%	-5.5%	-1 억	5 억
솔브레인	47,250	2.1%	47.0%	7 억	0 억
덕산하이메탈	9,150	1.1%	-17.9%	-1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7,700	0.0%	5.5%	13 억	-16 억
LG이노텍	96,200	1.7%	-14.5%	-19 억	95 억
파트론	9,570	2.2%	-18.6%	0 억	5 억
루멘스	4,840	-1.0%	-31.3%	-1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10,950	6.8%	60.6%	14 억	-1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2,500	2.7%	5.8%	71 억	-34 억
컴투스	143,800	1.3%	4.8%	4 억	72 억
NHN엔터테인먼트	53,000	-0.6%	-39.4%	16 억	-25 억
게임빌	98,000	-0.4%	-18.8%	-8 억	1 억
위메이드	39,950	1.4%	5.7%	11 억	3 억
선데이토즈	18,450	8.2%	7.3%	-3 억	35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6,700	0.0%	441.4%	1 억	6 억
한글과컴퓨터	17,800	1.7%	-11.9%	5 억	-7 억
코나아이	34,700	-1.4%	3.0%	0 억	-3 억
슈프리카	20,450	7.1%	-19.6%	3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64	-0.4%	4.5%
MSCI Internet	161.35	-0.4%	5.6%
MSCI Software	170.57	-0.2%	4.3%
MSCI Semicon	221.79	-0.5%	0.7%
MSCI IT Services	124.22	-0.3%	5.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9.53	-0.4%	3.6%
Facebook	82.14	0.1%	5.3%
Tencent	154.70	-2.0%	37.5%
Baidu	205.89	0.8%	-9.7%
Yahoo	42.81	-0.2%	-15.2%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14	-0.5%	-0.7%
Oracle	43.81	0.1%	-2.6%
SAP	73.64	-1.6%	5.7%
EMC	27.34	1.2%	-8.1%
Symantec	24.00	-0.2%	-6.5%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8.65	-0.5%	16.6%
Nokia	7.12	-3.0%	-9.4%
Lenovo	12.00	-1.3%	17.6%
ZTE	23.35	0.0%	38.7%
HTC	92.8	-1.8%	-34.6%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84	-1.5%	-12.3%
Qualcomm	68.25	-0.9%	-8.2%
Texas Instruments	53.78	-0.4%	0.6%
Micron	26.59	-1.4%	-24.1%
Toshiba	450	0.2%	-12.2%
Renesas	976	0.4%	18.6%
STMicro	8.42	-1.6%	12.7%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7.40	-0.6%	4.3%
HP	32.92	-1.1%	-18.0%
Accenture	95.40	-0.6%	6.8%
Fujitsu	733	-1.2%	13.8%
NTT Data	5,500	0.0%	21.8%
CSC	67.69	0.0%	7.4%

Hardware	close	1D	YTD
GE	27.29	0.1%	8.0%
Panasonic	1,758	-1.5%	23.2%
SONY	3,734	-1.0%	51.0%
Whirlpool	187.77	-0.1%	-3.1%
Electrolux	254.00	-1.4%	11.0%
Haier	22.85	0.2%	23.8%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0,070	-1.0%	51.5%
KYOCERA	6,678	0.0%	20.2%
Nidec	9,097	0.3%	15.9%
TDK	10,000	-0.3%	39.7%
Ibiden	2,253	-3.3%	26.0%

Display	close	1D	YTD
Sharp	171	-0.6%	-36.2%
Japan Display	523	-0.4%	41.4%
AUO	5.10	-0.6%	0.2%
Innolux	17.60	-2.2%	14.3%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하이닉스	219 억	LG디스플레이	-103 억
삼성에스디에	142 억	LG전자	-66 억
엔씨소프트	71 억	삼성SDI	-44 억
삼성전자	67 억	다음카카오	-34 억
이오테크닉스	33 억	월익IPS	-34 억
비츠로셀	27 억	SK C&C	-33 억
삼성테크윈	25 억	웹젠	-31 억
LS산전	24 억	LG이노텍	-19 억
NAVER	19 억	KH바텍	-15 억
인텔퍼렉스	17 억	원익머트리얼	-13 억
NHN엔터	16 억	엠씨넥스	-9 억
일진디스플레이	14 억	게임빌	-8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205 억	삼성에스디에	-377 억
LG이노텍	95 억	NAVER	-148 억
KH바텍	79 억	삼성SDI	-91 억
컴투스	72 억	SK하이닉스	-42 억
SK C&C	36 억	엔씨소프트	-34 억
선데이토즈	35 억	NHN엔터	-25 억
이오테크닉스	34 억	LS산전	-24 억
삼성테크윈	23 억	토비스	-22 억
LG디스플레이	22 억	KG이니스스	-16 억
월익IPS	21 억	삼성전기	-16 억
애플리카TV	20 억	AP시스템	-13 억
LG전자	17 억	비츠로셀	-13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7133.16	-0.7%	-6.0%
DDR3 2Gb (Spot)	1.69 \$	-0.6%	-23.5%
NAND 64Gb (Spot)	2.58 \$	0.4%	6.6%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이오테크닉스,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에 강세

이오테크닉스는 Laser Marker, Wafer Dicer 등 기존 제품 부문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LLO (Laser Lift off) 장비, PI (Polyimide) Cutter의 매출 발생이 본격화되고, 내년부터는 Laser Annealing 장비, 강화 유리 Cutter 등에서도 대규모 매출이 개시될 전망이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7%, 45% 성장하고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도 45%, 64%의 높은 성장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만약 현재 고객사와 함께 상용화를 논의 중인 Package Cutter 장비의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면 동사의 내년 실적은 현재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

그러나 동사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주당가치에 비해 P/E 23.8배, P/B 4.2배, 내년 예상 주당가치에 비해서도 P/E 14.0배, P/B 3.2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러한 성장성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올해 실적 개선은 Flexible DP 부문의 LLO 장비 및 PI Cutter의 매출 본격화가 이끌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Flexible DP 채택률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올해 처음 매출이 발생하는 LLO 장비와 PI Cutter의 매출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RTP 장비를 대체하며 시장 규모가 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Laser Annealing 장비의 매출은 올해 연말 무렵 개시되고 내년에는 총 800~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강화유리 Cutting 또한 기술 난이도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 동사 실적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올해와 내년 신장비들의 매출은 각각 690억원과 2,29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동사의 강점은 이렇게 Laser 기술의 활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으며 2분기에도 726억원의 매출과 1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PI Cutter, Laser Annealing 장비의 매출 발생이 개시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사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동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의 1,331억원과 201억원에서 하반기에는 2,489억원과 621억원으로 각각 87%, 209% 증가할 것으로 추정.

삼성전자, 화성 17라인 D램 추가 증설 놓고 고민

삼성전자가 화성 17라인의 2단계 증설 투자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짐. D램으로 갈지, 시스템반도체로 갈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임.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성 17라인의 2단계 증설을 위한 장비 발주를 내지 않고 있음. 삼성전자는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17라인의 2단계 투자는 시스템반도체로 갈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투자 방향을 놓고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짐.

복수의 장비 업계 관계자는 "17라인에 도입될 시스템반도체용 장비 발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벌써 발주가 나왔어야 했다"고 언급. 이 같은 상황이 단순 발주 지연인지, 생산 품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후방 업계에서는 17라인의 2단계 투자도 시스템반도체가 아닌 D램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고 있음.

현재 D램 상황이 좋기 때문. 시스템반도체 전용 공장이었던 17라인의 1단계 투자를 D램으로 갔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삼성전자는 고성능 시스템온칩(SoC) 생산을 위한 14나노 핀펫(FinFET) 공정 기술을 글로벌파운드리(GF)에 제공해 '원 디자인 멀티소싱' 체계를 구축한 한 바 있음. 애플 등 파운드리 고객사는 동일 디자인으로 삼성전자와 GF의 공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즉, 14나노 파운드리 고객사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 용량 확대는 현재 급하지 않은 상황. 올 들어 독자 SoC인 엑시노스 AP가 갤럭시S6에 단독으로 탑재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긴 했으나 추가 증설을 필요로 할 만큼은 아님. 여전히 외부 업체로 공급되는 엑시노스 AP 물량은 적음.

경기도 이천에 신규 공장(M14) 건설을 마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 SK하이닉스는 기존 D램 공장인 M10의 장비를 M14로 이전한다는 계획. 그러나 장비 이전을 마친 후 M10에서 어떤 반도체를 생산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시스템반도체, D램, R&D 라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짐.

업계의 관계자는 "제조 공정의 미세화 속도가 과거 대비 더뎠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방향은 시황에 따라 분기 단위, 월 단위로 바뀌고 있다"며 "공장부터 지어놓고 그 속에 어떤 제조 장비를 들여놓을지 결정하는 기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선데이토즈	8.2%	최근이슈

News & Issue

선데이토즈, 하반기 신작 기대감에 강세

선데이토즈는 하반기 출시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하반기 출시될 신작들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고평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되며 저평가 전환이 가능할 것.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1월 애니팡2 출시 후 1년 반 동안 신작이 부재. 올해 하반기에는 4~5개의 신작을 론칭할 예정(모두 애니팡 캐릭터 활용한 캐주얼 장르).

상하이 애니팡(마작류/퍼즐류)이 7월말 국내시장에 론칭할 예정이며 애니팡 맞고가 하반기 국내시장에 출시될 것. 또한 4분기 애니팡2가 북미·유럽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 이외에도 기타 퍼즐류 게임 1~2작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2.7%	최근이슈

News & Issue

엔씨소프트, 세계 100대 혁신 기업 선정 '눈길'

미국 포브스가 선정하는 100대 혁신 기업 순위에 한국 게임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엔씨소프트가 랭크됨. 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5년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혁신 기업 리스트 91위에 랭크된 것으로 알려짐. 100대 혁신 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해 발표하는 기업 순위로,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랭크된 바 있음.

순위의 책정은 지난 1년간의 매출 성장률과 과거 4년간 연간 투자 총 수익, 자체 평가를 통한 혁신 점수로 결정. 자체평가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과거의 성적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가치를 수치화해 반영.

엔씨소프트가 올해 혁신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도 자체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덕으로 보임. 이는 엔씨소프트가 길드워 시리즈를 시작으로 와일드스타를 해외 시장에 론칭해 성과를 낸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인 엔씨 클라우드(가칭) 등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바 있음. 한편 올해 100대 혁신 기업 리스트에는 엔씨소프트와 함께 현대글로비스(68위), 오리온그룹(70위) 등 3개 한국기업이 선정.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디스플레이	-3.7%	최근이슈

News & Issue

LG디스플레이, 中 업체 LCD 증설에 약세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업체들의 LCD 설비투자 확대 소식에 약세. BOE를 비롯해 CSOT, CEC판다 등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최근 8세대(2,200×2,500mm) 신규 라인 가동을 시작. BOE는 월 9만장 규모 8세대 라인 가동에 착수했고, CSOT 선전 공장도 월 10만장 규모 생산에 돌입. 중국 난징에 위치한 패널업체 CEC판다도 월 2만장 규모 8세대 라인 가동.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회사들도 증설에 나서면서 LCD 가격 하락이 예상.

이로써 회복 조짐을 보이던 디스플레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짐. 중국 업체들이 LCD 설비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자 삼성과 LG 등 한국 회사들도 증설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특히 BOE는 공격적인 투자로 한국 업체들을 긴장하게 함. BOE는 최근 한국 업체들이 보유한 8세대를 뛰어넘는 10.5세대(2,940×3,370mm) LCD 패널 라인 투자를 발표. 이를 통해 60인치 이상 초대형 TV시장 패널을 선점한다는 계획. 10.5세대는 65인치 패널이 8장 나오기 때문에 3장 정도 확보할 수 있는 8세대에 비해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BOE는 400억위안(약 7조원)을 투자해 안후이성 허페이에 LCD 패널 공장을 만들 예정.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들도 생산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음.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에 중국 쑤저우 LCD 라인 증설 투자를 집행할 예정. 규모는 월 6.5만장.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은 지난 1분기에 월 3만장 규모 라인을 증설했으며 추가 확장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LCD 생산 능력 증가율은 지난해 2%에서 올해는 6%, 내년에는 9%에 달할 것으로 전망. LCD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 LCD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60인치대 TV용 LCD 패널은 월 평균 1.2%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모든 크기 패널이 역성장을 한다는 의미. LCD 가격이 떨어지면서 TV 제조사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섬. TV 메이커 입장에서 패널 가격이 내려가면 재료가 줄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면 결국 TV 가격도 내려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TV회사들은 프리미엄 제품에 승부를 걸고 있음. 삼성은 SUHD라 불리는 초고화질 TV 판매에, LG전자는 OLED TV시장에 주력. 하이센스를 비롯해 칸자와 창홍 등 중국 TV회사들도 OLED TV를 출시했으며, 올 1분기 세계 OLED TV 점유율 10%를 돌파.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중국 회사들은 작년만 해도 OLED TV 시장 점유율이 1%를 간신히 넘었으나, 지난 1분기엔 11.4%를 기록.

삼성페이 9월 연기, 갤럭시S6, 부진 탓?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출범을 여름에서 가을로 늦춰짐.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탑재.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삼성페이의 1차 출시국은 한국과 미국.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를 통해 개통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는 100만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두 제품은 지난 4월10일 국내에 선보였고 기대에 비해 적은 수치.

그러나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월 150만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숫자. 두 제품은 평균 일개통 1.5만대 정도를 기록하며 국내 유통 휴대폰 중 가장 많은 하루 판매고를 기록 중.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히트카드 중 하나는 삼성페이.

삼성전자는 차별화를 위해 미국회사 루프페이를 인수.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방식 확보를 위함. 이로써 근거리무선통신(NFC)만 지원하는 경쟁 서비스에 비해 활용처가 늘어남. 가맹점은 기존 신용카드용 결제기를 그대로 쓸 수 있음.

하지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B2B 개발팀장 이인종 부사장은 지난 3일 '삼성투자자포럼(Samsung Investors Forum)2015'에서 "오늘 9월부터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며 "다음 플래그십 모델을 런칭할 때 같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

삼성전자는 당초 삼성페이 서비스 시점을 7월에서 2개월 연기함. 다음 플래그십 모델은 삼성전자 제품군을 고려하면 '갤럭시노트5'. 삼성페이 출범 연기를 두고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예상보다 낮은 판매량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갤럭시노트5 출시 연기는 이를 만회하려는 명분으로 해석됨.

현재 추세면 7월까지 국내 이용자의 손에 쥐어진 삼성페이 가능 기기는 100만대 수준. 삼성페이를 100% 이용한다고 봐도 경쟁 서비스에 비해 초라한 출발.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음. 삼성페이 전체 로드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따라서 차라리 서비스 시작 시점을 미루는 편이 적절한 판단.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6 판매부진 때문에 삼성페이 상용화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니다"라며 "차기 신제품 공개 시점과 삼성페이 상용화를 연계하는 것이 삼성페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연관설을 부인.

한편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470억건에 달할 전망.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페이의 점유율 목표를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15~20%인 1,700만명 가량으로 정함. 즉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갤럭시노트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목표가 전체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1,700만대인 셈.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8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